동아시아 해양문화와 일본신도의 해신*

세키네 히데유키**
sekine@gachon.ac.kr

<目次>

1. 머리말
2. 해신의 모체문화와 신도
 2.1 일본의 기층문화
 2.2 해인의 민족이동과 문화전파
 2.3 신도의 여러 위상
3. 와타쓰미 삼신
 3.1 세력다툼에서 쇠퇴한 아즈미씨
 3.2 해신의 정치이데올로기화
 3.3 바다에서 멀어진 신도 해신제
4. 스미요시 삼신
 4.1 야마토에서 성장한 쓰모리 씨
 4.2 해신의 정치이데올로기화
 4.3 바다에서 멀어진 신도 해신제
5. 무나카타 삼여신
 5.1 지정학적으로 부상한 무나카타 씨
 5.2 해신의 정치이데올로기화
 5.3 바다에서 멀어진 신도 해신제
6. 맺음말

主題語: 해신(the sea gods), 신도(Shinto), 와타쓰미(watatsumi), 아즈미(azumi), 스미요시(sumiyoshi), 쓰모리(tsumori), 무나카타(munakata)

1. 머리말

일본에서 해신에 대한 제사는 일반적으로 신도(神道)로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신도라고 하는 체제를 갖춘 종교가 성립되기 전에는 생업에 뿌리내린 민속신앙 차원에서 해신에 대한 제사가 행해져 왔다. 일본신화에서는 이러한 해신들의 터전이 일본열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일본에서 1950년~1970년에 유행했던 역사민족학(歷史民族学, Historische Ethnologie)[1]의 연구에 따르면 그 기원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에 둔다고 한다. 한반도의 해신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두 지역의 해신은 기원을 공유했으나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 이 글은 2020년 11월 3일,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마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다.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교수

1) 특히 20세기 초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문화권설(Kulturkreislehre)'은 문화의 공간적 분포에서 '문화권'을 상정하여 세계적 규모의 문화사 구성을 시도한 학설이다. 여러 자료에서 얻은 문화요소(cultural element)의 분포를 실마리로 삼아 문화사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민족이동'과 '문화전파'를 설명 원리로 하기 때문에 전파주의(diffusionism)로 불리기도 한다.

거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민족학에 입각하여 신도의 해신에 대한 제사를 일본 고유 신앙이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문화의 하나의 '전개'로 파악하여 동아시아의 해신과의 문화적 공감대 조성의 단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역사민족학의 선행연구를 실마리로 원래 신도 해신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동아시아 기층문화와 그 주체 부족의 정체성과 그들이 언제 어떤 계기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그들의 해신이 전파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민속신앙 차원의 해신을 섬긴 해인 부족이 왜왕권에 편입하여 제사를 맡게 된 과정, 해인 부족과 왜왕권과 혈연관계를 맺은 신화가 창조되면서 종교사상이 정치사상이 되는 과정, 신사의 제신이 된 해신이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다와 관련이 없는 행사를 하게 된 가정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3대 해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와타쓰미 삼신[綿津見三神], 스미요시 삼신[住吉三神], 무나카타 삼여신[宗像三女神]의 사례를 통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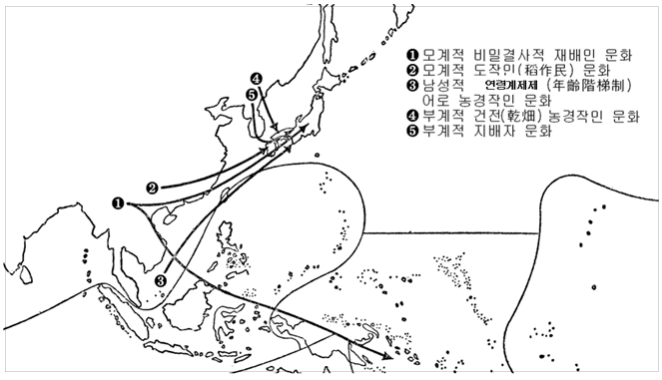
2. 해신의 모체문화와 신도

2.1 일본의 기층문화

빈 학파(Wiener Schule)로서 일본 민족학자의 선구자인 오카 마사오[岡正雄, 1898~1982]는 일본민족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문화와 종족을 5~6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1956년에 고대의 '사회조직'과 '경제형태'를 근간으로 각 문화를 고찰했다. 우선 일본의 토착문화를 '무토기문화(無土器文化)'와 '조몬식토기문화[縄文土器文化]'[2]로 명명했다. 이어서 일본열도 외부에서 전파된 문화를 연대순으로 ❶ 모계적·비밀결사적 재배민 문화, ❷ 모계적·도작민 문화, ❸ 남성적·연령계제제적·어로 농경작민 문화, ❹ 부계적·건전 농경작민 문화, ❺ 부계적 지배자 문화를 상정했다.[3]

2) 조몬식토기가 사용된 시대를 조몬시대라고 하는데 일본의 신석기시대에 해당된다. 종래 기원전 1만 40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탄소연대측정법'으로 야요이시대가 소급되면서 조몬시대의 끝도 소급되었다. 대체로 기원전 1만 4000년경~기원전 10세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

3) 岡正雄(1979)『異人その他: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言叢社, pp.18-36



<그림1> 동아시아 종족문화 계통 상정도

그리고 각 문화의 주체가 되는 종족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우선 오카는 토착적 문화인 '무토기문화', '조몬식토기문화'의 주체를 일본의 선주민으로 삼고 그들을 각각 '여명기 채집수렵인', '신석기시대 채집·수렵민'으로 삼았다.

그리고 후대에 일본열도 밖에서 전파된 기층문화의 주체 종족으로서 각각 ❶ 타로토란 재배민, ❷ 오스트로아시아계(Austro-Asian) 도작민, ❸ 오스트로네시아계(Austronesian) 도작민, ❹ 퉁구스계 농경민, ❺ 알타이계 지배자로 명명했다. 오카는 각 기층문화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화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표1>).

<표1> 일본 기층문화의 구성요소[4)]

	종 족	기층문화	문화요소
선주민	**여명기 채집·수렵민**	무토기문화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의 석인이나 세석기와 유사하지만 어떤 요소는 동남아시아의 악부와 연관된다. 아북극의 수렵인이나 열대지역의 채집·수렵민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주민	**신석기시대 채집·수렵민**	조몬식 토기문화	고도의 채집·수렵민으로 추정됨. 동일본의 토기는 유라시아나 알래스카와 유사함. 서일본의 것은 남중국, 인도차이나반도와 관련이 있다. 조몬시대에 북동시베리아, 알래스카에서 번성한 북태평양 어로문화가 동북일본으로 들어 왔다.
❶	**타로토란 재배민**	모계적·비밀결사적 재배민 문화	조령이 멀리에서 마을에 찾아온다는 조선신앙, 가면으로 가장한 조령이나 신의 표상, 원시 비밀결사, 모계사회, 타로토란 등의 간단한 농경, 어미가 모음으로 끝난다.

4) 위의 책, pp.37-47을 요약.

❷	**오스트로 아시아계 도작민**	모계적· 도작민 문화	부부가 별거하다가 처를 방문하는 결혼 방식, 자녀를 모친 밑에서 성육, 일식신화, 홍수신화, 농경이나 식물에 관련되는 여신이 살해되고 시체에서 식물이 생긴 신화이다.
❸	**오스트로네시아계 도작민**	남성적·연령계제제적·어로 농경작민 문화	동아시아 신석기시대 말기 문화에 기반, 동기-청동기-철기문화가 남방과 북방에서 유입, 거석문화도 포함됨, 발전된 수리 시설, 벼농사에 관련된 도구, 종교적 관념·의례, 배나 어업, 인도네시아 문화의 영향, 오·월 지방의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❹	**퉁구스계 농경민**	부계적·건전 농경작민 문화	야요이문화의 북방적 요소. 원래 잡곡을 재배하였으나 한반도와 서일본에서 벼농사 습득, 부계적 씨족,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즐문토기나 지석묘, 시베리아 청동기 문화의 간접적 영향, 알타이어계의 퉁구스 언어이다.
❺	**알타이계 지배자**	부계적 지배자 문화	조직된 침략적 종족이 농경민을 정복하여 왕조 수립, 부계적 씨족, 부장권이 강한 대가족제도, 씨족연합, 씨족 단위의 직능적 분업, 노예제, 기마, 군대, 오조직, 씨족 직계를 뼈로 상징하는 제도, 천신숭배·영웅숭배, 신이 하늘에서 산정이나 나무에 하강하는 신앙, 부계적 선조숭배, 샤먼이다.

<표1>에서 해신제와 관련된 문화는 바다를 건너 전파되었던 ❶❷❸으로 추정된다. 거기에는 조령(祖靈) 신앙, 원시 비밀결사, 모계사회, 농경문화, 별거하다가 처를 방문하는 결혼관습, 자녀를 모친 밑에서 양육하는 관습, 홍수신화, 여신이 살해되고 시체에서 식물이 생긴 신화, 청동기·철기문화, 거석문화, 벼농사와 관련된 도구·수리시설·종교의례, 배·어업 등의 문화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민족학자 오바야시 다료[大林太良, 1929~2001]는 바닷속에 들어가 물고기나 해조류, 패류 등을 잡는 어업, 독신 남자가 함께 합숙하는 관습, 오두막집에서 출산하는 습속, 장례식 때 상주를 대신하여 곡을 하는 습속, 머리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운반하는 관습 등도 ❸에 포함되는 문화로 보았다. 이러한 문화들은 전전(戰前)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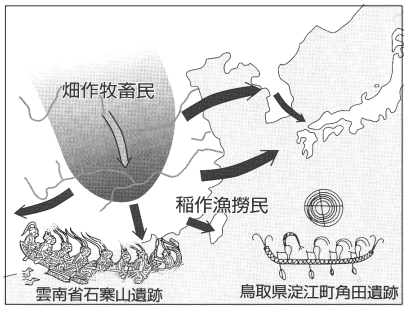
2.2 해인의 민족이동과 문화전파

<표1>의 ❶❷❸ 문화 중에서 특히 ❸은 배와 관련된 문화로서 특별히 주목된다. 오카는

5) 大林太良(1995)『北の神々南の英雄』小学館, pp.201-204

이러한 문화의 주체였던 종족을 '오스트로네시아계 도작민'으로 명명했는데 2000년대에 환경고고학자 야스다 요시노리[安田喜憲, 1946~]는 벼농사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작어로민(稲作漁撈民)'이라고 명명했다.

그들의 원래 거처는 장강유역이었으며 그곳에는 많은 민족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원전 4세기경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작목축민(田作牧畜民)'이 남하하여 여러 분쟁이 발발하고 큰 민족이동이 일어났다. 그때의 민족이동이 남긴 상징적 문화가 <그림2>의 배의 노를 젓는 도작어로민의 문화이다. 중국 윈난성(雲南省)과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에서 발견된 그림(<그림3>)은 그들이 옛 터전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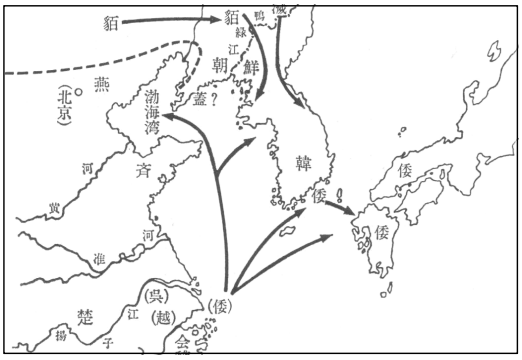


<그림2> 도작어로민의 민족이동[6]

그렇다면 도작어로민은 중국 역사에는 어떤 명칭으로 등장했을까? 초나라(B.C. 11세기~B.C. 223년), 월나라(B.C. 600년경~B.C. 306년), 오나라(B.C. 585년경~B.C.473년)는 모두 가까운 민족으로 구성되어 '백월(百越)'로 총칭되었다. 이 나라들은 서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오나라는 월나라에 멸망당하고 월나라는 초나라에 멸망당했다. 월나라 멸망 후 일부 월인은 난민으로서 새로운 땅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월나라 멸망 이전부터 해로를 통해 이주했을 것이다. 어떤 집단은 한반도로 또 어떤 집단은 북부 규슈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월의 대표적인 문화가 '벼농사'와 '잠수 고기잡이'였는데 한족(漢族)은 그들을 멸시했다. 일설에 의하면 고대 중국어에서는 '越'와 '倭'가 'wo'로 발음이 같았으며 동중국해에서 활동했던 '越人'이 '倭人'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그림3>은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1906~2002]가 그들의 민족이동을 추정한 것이다. 기원전 4세기에 일본에 이주한 도작어로민[월인(越人) 왜인(倭人)] 중, 특히 바닷가에 정착해서 어로로 생활을 영위하고 해신을 모신 사람들을 '해인'으로 볼 수 있다.

6) 安田喜憲(2003)『日本古代のルーツ長江文明の謎』青春出版社, p.114



<그림3> 월인에서 왜인으로(B.C. 4~2세기)[7]

2.3 신도의 여러 위상

일본열도로 이동한 도작어로민인 왜인과 그에 수반된 문화는 일본에서 신도라고 하는 종교문화로 변화하여 정착되었다. 그런데 종교연감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일본의 신도계 종교단체 신자 수는 88,959,345 명(불교계 단체 신자 수 84,835,110 명), 신사 수는 80,934개(불교 사원 수 76,907개)[8]로 되어 있다. 즉 일본인의 약 70%가 신도 신자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사 쪽의 자기 신고에 의한 것으로, 자신은 무종교라고 응답한 일본인이 70%를 차지하는 여러 다른 조사 결과와는 상충된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신도는 애매성과 다의성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본인마저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신도 해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신도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신도는 대체로 맥락에 따라 <표2>와 같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표2> 신도의 다의성

①	**민속민간 신도 (~4세기경)**	민속에서 유래된 문화로서의 신도. 불교나 도교와 다양하게 융합된다.
②	**왜왕권의 신도 (4~5세기경)**	『고사기』·『일본서기』에 나오는 신들에 의해 구성된 신도이다. 원래 고대 호족의 신으로, 민중과 무관하지만 현재 신사의 제신(祭神)은 대부분 이러한 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③	**신사신도(8세기~)**	신사를 중심으로 제사를 실시하는 신앙. 오늘날 신도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④	**학파신도**	신도를 사상화한 학문으로서의 이론이다.

7) 江上波夫(1984)『倭人の國から大和朝廷へ(江上波夫著作集 8)』平凡社, p.117
8) 文化庁 編(2020)『宗教年鑑 令和2年版』文化庁, pp.35-36

⑤	**황실신도**	황실의 궁중제사이다.
⑥	**국가신도**	메이지 시대부터 패전까지의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일본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국수주의 사상. 제국주의 시대에는 한반도, 중국, 동남아시아에 신사 약 600개가 만들어졌다.
⑦	**교파신도**	메이지 시대에 국가신도에 반발하며 종교성을 강조한 종교교단이 형성되었다. 크게 13교파로 나눠져 있으며 천리교(天理教)가 그중의 하나이다.
⑧	**신사본청**	패전 후 '국가 신도'가 해체되어 '신사 신도'와 '교파 신도'로 나눠진다. 현재 신사 약 8만 개의 80%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을 본부로 하는 종교법인 신사본청에 속한다.

이 글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신도는 ①, ②, ③에 해당된다(<표2>의 회색부분). 즉 거기에서 말하는 해신은 원래 기원전 4세기경에 특정한 지역 세력의 '민속신도·민간신도'(①)였다가 4~5세기경에 그 세력이 왜왕권(倭王權, 야마토왕권이라고도 함)으로 편입되면서 해신도 '왜왕권의 신도' 속에 편입되었다. 8세기에 율령국가로 편성됨에 따라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 속의 신들의 체계에 고착되었다(②). 이후 '신사 신도'로서 민간에 정착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③).

신화에는 바다를 받들고 있는 신이 많다. 그 중에서도 최초로 태어나 주재신(主宰神)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해신은 오와타쓰미노카미[大綿津見神]이다. 그러나 이 신은 탄생 시[9]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 사적(事蹟)은 전해져 있지 않다.[10] 오늘날 널리 신사에서 모셔져 있는 해신은 '3대 해신'으로 알려져 있는 와타쓰미 삼신[綿津見三神], 스미요시 삼신[住吉三神], 무나카타 삼여신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하위의 세 가지 해신의 집합체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해신에 대해 해신을 봉안했던 원초적인 해인 부족, 정치이데올로기로 변용한 신화와 제신(祭神), 민간신앙을 수용한 해신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와타쓰미 삼신

3.1 세력다툼에서 쇠퇴한 아즈미 씨

와타쓰미 삼신의 '와타'는 원래 한국어의 '바다', '쓰'는 '의', '미'는 '신'의 옛 명칭이기

9) 이자나기[伊邪那岐]가와 이자나미[伊邪那美]가 신들을 만들었을 때 여덟 번째에 태어났다(『고사기』).
10) 島田潔「大綿津見神」(1998)薗田稔·茂木栄『日本の神々の事典 神道祭祀と八百万の神々』学研, p.156

때문에 '와타쓰미'는 '바다의 신'이라는 뜻이다.[11] 와타쓰미 삼신에는 아들인 우쓰시히카나사쿠노미코토[宇都志日金析命]가 있으며 그의 후손이 '아즈미 씨[阿曇氏, 安曇氏]'이다(『고사기』).[12] 그들이 대대 시카우미 신사[志賀海神社]를 받들어 왔다.[13]

아즈미 씨는 고대일본에서 전국의 해인을 관장한 유력씨족으로 발상지는 쓰쿠시노 군[筑前国] 가스가군[糟屋郡] 아주미고[阿曇郷](현재의 후쿠오카시[福岡市] 동부)이다. 오래 전부터 중국이나 조선반도와 교역을 통해 노국[奴国]의 왕족이었으나 후대에 본거지였던 후쿠오카 시카시마[志賀島] 일대에서 기내로 진출한 후에 셋쓰[摂津, 현재의 오사카부와 효고현 동부]·하리마고쿠[播磨國, 현 효고현 서부]에 근거지를 두고 전국의 해인집단을 관장했다. 다나베 사도루[田辺悟, 1936~]는 마즈미 씨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해인인 아즈미 씨는 적어도 4세기 말경 북부 규슈지방에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조직적, 전략적으로 살기 시작했다. 오진천황 이후는 야마토 조정[大和朝廷](왜왕권을 가리킴)의 직접 병력으로서, 혹은 해인족의 특징을 살려서 한반도 항로의 해상 교통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4]

위와 같이 아즈미 족은 당시 유력했던 왜왕권에 정치적으로 편입했던 것이다. 최근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아즈미 씨의 흔적을 남긴 고대 연고지는 서일본(西日本)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야요이 시대[弥生時代][15]부터 고훈시대[古墳時代][16] 초기까지, 즉 기원전 10세기부터 5세기경까지 큰 세력이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4~5세기경의 아즈미 씨는 왜왕권의 지배 아래 해인 집단을 관장한 호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아즈미 씨족의 흔적을 남긴 연고지는 간토[關東]보다 서쪽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는 거의 전역에 걸쳐 그들의 세력권이었다.[17]

현재 일본전국에 흩어진 아즈미족은 '시카[志賀, 滋賀]', '아쓰미[熱海·阿積·安曇·厚見·厚海淡路 등]'라는 표현으로 한자를 변형하여 지명에서도 남아 있다. 그들이 이동한 흔적은 <그림4>로 알 수가 있다.

---

11) 飯田勇(1997)「ワタツミ三神」大林太良·吉田敦彦『日本神話事典』大和書房, p.128
12) 中嶋宏子(2001)「綿津見大神」, 大島建彦 外, 『日本の神仏の辞典』大修館, p.1361
13) http://shikaumi-jinja.jp/about/index.html(검색일 2020.9.20)
14) 田辺悟,「海人の信仰とその源流」大林太良『海人の伝統 日本の古代8』中央公論社, p.333
15) 종래 야요이시대는 기원전 5~3세기경에 시작해서 기원후 3세기에 끝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2003년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탄소연대측정법'으로 야요이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렸다. 찬반양론이 있으나 학계에 수용되는 추세다.
16) 조문시대, 야요미시대에 이른 고고학상의 시기구분으로 일반적으로 고분시대 3세기 중엽부터 7세기 말경까지, 약 400년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17) 安曇誕生の系譜を探る会 ゆかりの地部会(2015)「綿津見神社の調査結果報告書 安曇誕生の系譜を探る会」, p.16

<그림4> 아즈미 씨의 연고지[18]

그러나 그 후 아즈미 씨는 대부분 쇠퇴해버리고 현재까지 명확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곳은 얼마 안된다. 쇠퇴의 이유는 각 지역의 세력 다툼에서 패배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사의 제신이 변천한 신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즈미 씨족의 쇠망 사정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

3.2 해신의 정치이데올로기화

해인의 주된 생업은 '어로'나 '항해'가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에도 바다는 위험천만 곳인 만큼 많은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큰 물고기의 습격을 주술적 힘으로 방어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하기도 했다. 집단적 차원으로는 특정 해인 집단이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행위는 해인이 왜왕권에 편입되면서 자신들의 해신도 국가의 신화체계로 편집되게 하였다.

특히 일본신화 신들의 계보는 왜왕권과 호족과의 계보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와타쓰미 삼신 역시 황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일본신화 체계에 편입되었다. 지배자가 수계(水界)로 향하여 그곳을 다스리는 신의 딸과 결혼(聖婚)한다는 형식의 신화는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중국 해안가, 인도차이나 등에 분포되어 있는데 와타쓰미 삼신 역시 황실 시조와의 성혼이란 형태로 편입되었다.

신화 속의 와타쓰미 삼신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시조의 여신 이자나미[伊邪那美]의 죽음 후 남편인 이자나기[伊邪那岐]가 황천에 갔다가 돌아와 목욕재계를 했을 때 세 신이 태어났다. 즉 깊은 물 속에서 재계했을 때 태어난 소코쓰 와타쓰미노카미[底津綿津見神], 수중에서 재계했을 때 태어난 나카쓰 와타쓰미노카미[中津綿津見神], 수상에서 재계했을 때 태어난 우와쓰

18) http://artbi456.blog.fc2.com/blog-category-51.html(검색일 2020.9.20)

와타쓰미노카미[上津綿津見神]이다(『고사기』·『일본서기』). 이처럼 와타쓰미 삼신은 시조신 이자나기의 종교의례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를 받음으로써 왜정권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왜정권에서 권위를 부여받으려고 했던 장치는 신사의 제신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와타쓰미 삼신을 받들고 있는 신사의 총본사(總本社)인 시카우미 신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신을 받들고 있다(<그림5>).

좌전: 나카쓰와타쓰미노카미, 진구황후
중전: 소코쓰와타쓰미노카미, 다마요리히메
우전: 우와쓰와타쓰미노카미, 오진천황

<그림5> 시카우미 신사의 제신과 합사하는 신[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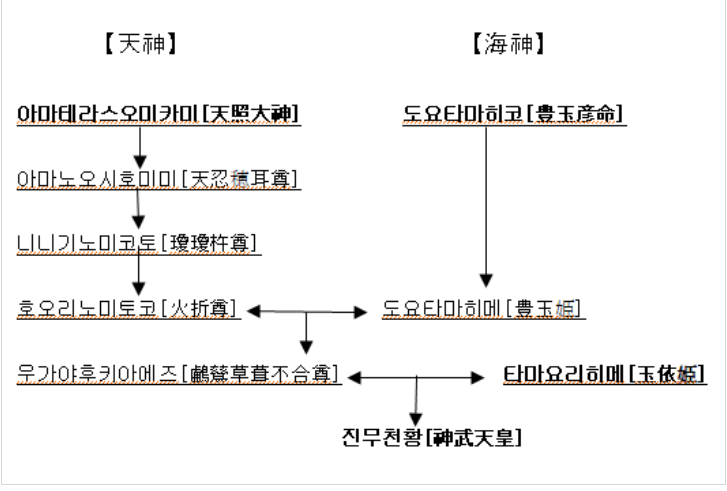
위와 같이 좌전(左殿), 중전(中殿), 우전(右殿)에 각각 나카쓰와타쓰미노카미, 소코쓰와타쓰미노카미, 우와쓰와타쓰미노카미를 받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기 진구황후·다마요리히메[玉依姬命]·오진천황의 합사 신(배시[配祀])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진구황후가 삼한정벌(三韓征伐)[20] 때 아즈미 씨를 불러 삼한을 평정하고 귀환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21] 그런데 과거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이 사실로 인식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가공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그의 아들 오진천황은 여전히 실제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 사실은 진구황후의 설화는 오진천황의 위적을 찬양하기 위한 가공이야기이며 좌전과 우전에 합사된 제신은 실질적으로 모두 오진천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마요리히메는 어떤 연유로 합사되었을까? 실은 다마요리히메는 와타쓰미삼신과 다른 계통의 해신인 오와타쓰미노카미[大綿津見神][22]의 딸이면서 초대천황인 진무천황

19) https://genbu.net/data/tikuzen/sikakai_title.htm(검색일: 2012.9.28)
20) 신라정절이라고도 한다. 『고사기』·『일본서기』에 따르면 진구황후는 추아이천황[仲哀天皇]이 사망한 후,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출전하여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고구려까지 굴복시켰다고 한다. 귀국 후에는 오진천황을 낳아 야마토[大和, 현 나라현]에서 적들을 쳐서 오진천황을 황태자로 세운 다음 70년간 섭정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1) http://shikaumi-jinja.jp/about/index.html(검색일: 2012.5.28)
22) 오와타쓰미노카미(『고사기』)는 화타쓰미노오카미[綿津見大神, (『고사기』)], 와타쓰미노미코토[少童命, (『일본서기』)], 와타쓰미[海神, (『고사기』『일본서기』)], 도요다마히코[豊玉彦『일본서기』]와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

[神武天皇]의 모친이다. 황실의 조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후손인 호오리[火折尊]는 해신인 도요타마히코[豊玉彦](=오와타쓰미노카미)의 딸인 도요타마히메[豊玉姬]와 결혼해서 우가야흐키아에즈[鸕鷀草葺不合尊]를 낳았다. 그리고 그와 도요타마히메의 여동생 다마요리히메[玉依姬]가 결혼해서 낳은 가무야마토이와레비코노스메라미코토[神日本磐余彦天皇]가 바로 진무천황이다(<그림7>).



<그림6> 천손과 성혼한 해신

이처럼 다마요리히메는 황실의 외척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시카우미 신사에서 본디 와다쓰미 삼신이 관계가 없는 해신의 딸을 함께 합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황실의 외척을 모심으로서 권위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3.3 바다에서 멀어진 신도 해신제

3.3.1 시카우미 신사

후쿠오카의 시카노시마[志賀島]에 위치하고 있는 시카우미 신사는 전국에 852사의 와타쓰미 신사[綿津見神社] 및 해신사(海神社)의 총본사이다(<그림7, 8>). 대부분 와타쓰미 삼신을 제신으로 모시지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마요리히메[玉依姬]나 도요타미히메[豊玉姬] 또한 아즈미 씨의 시조인 아즈미노 이소라[阿曇磯良]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림7> 시카노시마[23]

<그림8> 시카우미 신사[24]

그런데 시카우미 신사는 왜왕권과 함께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927년의 『엔기시키[延喜式]』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제사의 대상(名神大社)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 후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3세기의 몽고습래(蒙古襲来,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때는 시카노시마가 전쟁터가 되었고[25] 14세기부터는 무사의 비호를 받았으며[26] 16세기에는 북부 규슈를 지배했던 고바야카와 씨[小早川氏]·구로다 씨[黒田氏]와 같은 영주의 비호를 받았다.[27] 메이지시대[明治時代]에 근대 사격제도(寺格制度)에서는 '촌사(村社)'로 분류되었다가 1926년에 '관폐소사(官幣小社)'로 승격했다. 고대에는 말사(末社)가 375사나 있었으나 1439년에는 120여사, 에도시대(江戸時代)에는 불과 5사만 남았다. 이처럼 시카우미 신사는 초기의 왜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다가 이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해신사로서의 상징성은 매우 강한 신사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신전에서의 가내안전(家内安全), 건강, 질병평유(疾病平癒), 첫 참배, 시치고상(七五三, 아이의 성장 기원), 액막이, 교통안전, 해상안전, 풍어 기원, 지진제(地鎮祭), 집 축문, 신전결혼식 등의 종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28]

3.3.2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해신제

오늘날 시카우미 신사에서는 한해 축제가 70회정도 개최된다. 주요한 것은 매년 1월에 열리는 호이사이[歩射祭], 4월과 11월에 열리는 호메마쓰리[山誉祭], 8월에 행해지는 칠석제

23) http://www.shikaumi-jinja.jp/(검색일 2020.9.22)
24) http://www.shikaumi-jinja.jp/(검색일 2020.9.22)
25) 「角川日本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1988)「志賀海神社」·「志賀島」『角川日本地名大辞典 40 福岡県』角川書店
26) 有馬学·川添昭二 編(2004)「志賀海神社」『福岡県の地名』平凡社
27) 「角川日本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 앞의 글
28) http://www.shikaumi-jinja.jp/(검색일 2020.9.22)

[七夕祭], 2년에 한 번 10월에 열리는 고신코사이[御神幸祭]·구니치사이[国土祭]이다.[29]

<표3> 시카우미 신사의 주된 해신제

호이사이	1월 2~15일	말을 타지 않고 활을 쏘는 것으로, 악귀를 쫓아내 한해를 점치는 행사이다.
호메마쓰리	4월, 11월	고기잡이, 사냥, 파종의 동작을 하면서 산의 부정을 없애고 신을 찬양하는 행사이다. 또한 진구황후의 삼한출병 때 향응한 전설을 기념한 행사.
칠석제	8월 6~7일	고기잡이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축제이다. 하카타만의 어부들이 풍어 깃발을 찾아와 참배한다.
고신코사이·구니치사이	10월 두 번째 월요일	가장 큰 대제로서 밤에 가마가 나와 신사까지 이동하여 춤을 봉납하고(<그림 9>) 다음 날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쏜다(<그림 10>).

<그림9> 고신코사이[30]

<그림10> 구니치사이[31]

<표3>을 보면 시카우미 신사의 주된 행사 중 바다와 관련된 것은 풍어를 기원하는 호메마쓰리와 고기잡이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칠석제이며 나머지는 바다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사가 되어 있다. 시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요소가 혼입된 모습이 확인된다.

29) http://www.shikaumi-jinja.jp/(검색일 2020.9.22)
30) https://ameblo.jp/yellowsunshine/entry-11044009462.html(검색일 2020.9.25)
31) https://ameblo.jp/yellowsunshine/entry-11044009462.html(검색일 2020.9.25)

4. 스미요시 삼신

4.1 야마토에서 성장한 쓰모리 씨

스미요시 삼신[住吉三神]도 원래 하카타만의 수호신(守護神)이었는데 와타쓰미 삼신[綿津見三神]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적되어 왔는데 양자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스미요시 삼신이 와타쓰미 삼신의 분파로 보는 견해[32]가 있는가 하면 양자가 서로 다른 계통의 해인이라는 견해[33]도 있다.

스미요시 삼신을 받드는 씨족이 나타난 것은 아즈미 씨 만큼이나 오래되지 않았다. 진구황후 삼한정벌 후에 왜왕권에 편입되며 항구 관리를 맡은 데다가 스미요시 대사의 역대 궁사(宮司)를 맡은 씨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셋쓰 스미요시군[住吉郡]의 호족 쓰모리 씨[津守氏]였다. 쓰모리는 나루터[津]를 지킨다[守]라는 뜻이다. 이후 나니와[難波, 현 오사카]가 발전함에 따라 스미요시 삼신은 수교와 원정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4.2 해신의 정치이데올로기화

앞에서 스미요시 삼신과 와타쓰미 삼신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고사기』·『일본서기』의 신대사(神代史)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34] 예건데 이자나기가 황천(黃泉)에서 돌아오자 와타쓰미 삼신과 함께 스미요시 삼신, 즉 소코쓰쓰노오노미코토[底筒男命], 나카쓰쓰노오노미코토[中筒男命], 우와쓰스노오노미코토[表筒男命]의 탄생이다.

또한 신화시대인 신대(神代)가 아니라 진무천황 이후인 인대(人代)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왜왕권과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진구황후가 삼한정벌에서 개선했을 때 쓰모리 씨의 선조인 다모미노스쿠네[田蓑見宿禰]와 호무타치[践立]가 신탁에 따라 황후에게 해신을 아나토[穴門] 야마다읍[山田邑](현재의 시모노세키[下関])에 모시도록 고했다. 이에 따라 황후는 야마다 읍에 신사를 세워 호무타치를 신관에 명명했다고 한다. 또한 황후가 삼한정벌에서 야마토[大和]로 귀환하는 도중에 배가 움직이지 않자 해신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

---

32) 北見俊夫(1995)「海洋と祭祀」 大林多良 編, 『日本の古代3 海をこえてのの交流』中央公論社, p.400
33) 田辺悟, 앞의 글, p.333
34) 加藤隆久(2001)「住吉大社」大島建彦 外『日本の神仏の辞典』大修館, p.712

그 지점이 바로 오늘날의 스미요시 대사의 자리인 나쓰와쓰[難波津, 현 오사카만]이다. 황후는 다모미노스쿠네에게 해신을 모시도록 명하여 그의 아들에게 쓰모리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35]

이와 같이 진구황후의 설화는 역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로서는 믿기 어려운 신화적 요소가 많다. 이러한 가공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으로 보면 쓰모리 씨의 유래를 얼마나 추앙하려고 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러한 설화는 아즈미 씨에는 없다.

다음으로 스미요시 대신의 제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와타쓰미 삼신처럼 세 지지 신궁에 세 가지 해신을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신궁을 따로 만들어 그곳에 진구황후를 모시고 있다(<그림11>).[36]

제일 본궁(第一本宮) : 소코쓰쓰노오노미코토
제이 본궁(第二本宮) : 나카쓰쓰노오노미코토
제삼 본궁(第三本宮) : 우와쓰스노오노미코토
제사 본궁(第四本宮) : 진구황후

<그림 11> 스미요시 대사의 제신

이것 역시 오진천황 시대에 왜왕권 체계가 자리매김 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진구황후의 위상에 관해서 시카우미 신사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시카우미 신사의 경우 진구황후는 나카쓰 와타쓰미노카미와 합사 신이라는 위상으로 되어 있지만 무나마카 대사의 경우는 소코쓰쓰노오노미코토, 나카쓰쓰노오노미코토, 우와쓰스노오노미코토와 동격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진구황후는 삼한정벌 설화에 나올 만큼이나 신사의 제신으로서도 위상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4.3 바다에서 멀어진 신도 해신제

4.3.1 무나카타 대사

스미요시 신사는 전국에 2,300사 이상 달하며 특히 오사카,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이키[壱岐], 쓰시마[対馬] 등 한반도로 이르는 해상항로의 요지에 분포되어 있다.

35) 宝賀寿男(1986)「第3章 地祇系氏族 第2節 海神族(2)尾張氏族 10津守連(一), 津守宿祢」『古代氏族系譜集成』中巻, 古代氏族研究会, pp.13-30
36) https://www.sumiyoshitaisha.net/about/origin.html(검색일 2020.9.25.)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북부 규슈의 해인 부족은 진구황후 내지 오진천황을 계기로 왜왕권에 편입되면서 시모노세키와 오사카에도 분령(分靈)하게 된 것이다. 현재 그들 중에서 오사카의 스미요시 대사[住吉大社](<그림12>)가 그 총본사로 되어 있으며 시모노세키와 후쿠오카의 스미요시 신사와 함께 '삼대 스미요시'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림12> 스미요시 대사[37]

나라시대(710-794)·헤이안시대(794-1192)에는 서방의 해상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주 나니와의 스미요시 신사에 참배했다. 특히 항해 수호신으로 국가와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은 견당사(遣唐使, 630-894, 15회)[38]와 견발해사(遣渤海使, 728-811, 13회)의 파견 때였다.[39]

이미 5세기의 진구황후 때부터 12세기까지 당대의 권력자가 신마(神馬)를 봉헌했고[40] 몽고습래 때는 적의 항복을 기원한 군사의 신이었다. 한편 스미요시 신사는 풍광명미(風光明媚)의 경치였기 때문에 고래부터 와카[和歌]를 지은 사람이 많아 8세기부터는 와카의 신이 되었다. 그런데 15세기의 전국시대에 발생한 화재로 많은 부분 소실되었으나 16세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농지조사에서 신사 영지로 인정되면서 서서히 회복했다. 17세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도 스미요시 신사를 보호했으며 이에 따라 영주들도 참배했다. 또한 저명한 문인들도 스미요시 신사를 노래로 읊음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많은 참배객을 모았다.

1946년에는 '스미요시 신사'에서 '스미요시 대사'로 개칭하며 오사카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는 부정을 없애는 신, 항해안전의 신, 와카의 신, 농업·산업의 신, 화살의 신, 씨름의 신 등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41]

---

37) https://www.sumiyoshitaisha.net/about/origin.html(검색일 2020.9.20.)
38) https://kotobank.jp/word/%E9%81%A3%E5%94%90%E4%BD%BF-60954(검색일 2020.9.20.)
39) 北見俊夫, 앞의 글, p.400
40) https://www.city.osaka.lg.jp/higashisumiyoshi/page/0000033861.html(검색일 2020.10.26.)
41) https://www.sumiyoshitaisha.net/about/god.html(검색일 2020.9.26.)

이처럼 스미요시 삼신은 왜왕권에 편입한 이후 순조롭게 역대 정권으로부터 후원이나 지지를 받으면서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이며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4.3.2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해신제

스미요시 대사는 1년 내내 옛 부터 전해진 제사를 당시와 같은 격식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행사가 많다. 반면 시대 변화에 따라 점차 폐지되는 축제도 있다. 많은 해신제 중에서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2]

<표4> 스미요시 대사의 해신제

답가신사 (踏歌神事)	1월 4일	땅을 딛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수나라·당나라에서 유행된 군중가무에서 유래한다.
백마신사 (白馬神事)	1월 7일	백마가 순례하고 악기를 불제하는 행사이다. 연초에 백마를 보면 악기를 쫓아낼 수 있다는 신앙에서 유래한다.
어결진신사 (御結鎮神事)	1월 13일	활과 화살로 악기를 쫓아내는 행사이다.
우노하신사 [卯之葉神事]	5월 첫 묘일	스미요시 대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는 행사이다.
스미요시사이 [住吉祭]	7월 30일 ~ 8월 1일	오사카를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스미요시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이다(<그림 13>).
오타우에 신사 [御田植神事]	6월 14일	논에서 행해지는 모내기 행사. 스미요시 대사에 신이 진좌했을 때 진구황후가 나가토국에서 모내기 여자를 불렀다는 행사이다(<그림 14>).
다카라노이치 신사 [宝之市神事]	10월 17일	진구황후가 삼한에서 조공으로 받은 공물을 백성에게 나누어 줘다는 설화를 기념한 행사이다.

<그림13> 스미요시 사이[43]

<그림14> 오타우에 신사[44]

42) https://www.sumiyoshitaisha.net/events/(검색일 2020.9.25.)
43) https://www.sumiyoshitaisha.net/events/special.html(검색일 2020.9.26)

위와 같이 대표적인 행사 중에서 진구황후에 관한 것은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다와 관련 행사가 없는 것은 이제는 해신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5. 무나카타 삼여신

5.1 지정학적으로 부상한 무나카타 씨

무나카타 삼여신을 섬긴 무나카타 씨도 역시 북부 규슈를 무대로 활동했는데 5세기 이후 한반도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부상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진구황후가 삼한정벌 직전에 무나카타 삼여신에게 가호를 빌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무나카타 삼여신에 대한 제사가 생겼다고 한다. 그 후 왜왕권은 천도 때마다 궁중에 무나카타 대사의 분령(分靈)을 봉안(奉安)했다. 진구황후와의 연고관계를 맺음으로서 왜왕권으로 개입하는 것은 다른 씨족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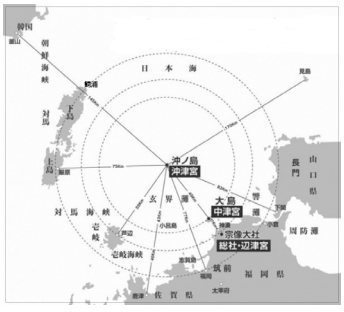
율령국가 건설 시기에는 무나카타 씨의 아마코노이쓰라메[尼子娘]가 덴무천황[天武天皇, 재위 673~686]의 황비가 되었다. 또한 무나카타 일대는 신군(神郡)[45]이 됨으로써 무나카타 씨는 제주(祭主)로서 봉사하는 동시에 행정도 맡게 되었다.

무나카타 씨의 거점은 아즈미 씨의 거점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었지만 특별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그림15>). 고대 야마토에서는 세토나이카이, 간몬해협[関門海峡]을 지나 오키노시마, 대마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해로는 '해북도중(海北道中)'으로 불렸다(<그림16>).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해북도중을 지키라는 신칙(神勅)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지만 흥미롭게도 다른 사료에는 오키노시마에가 요지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기술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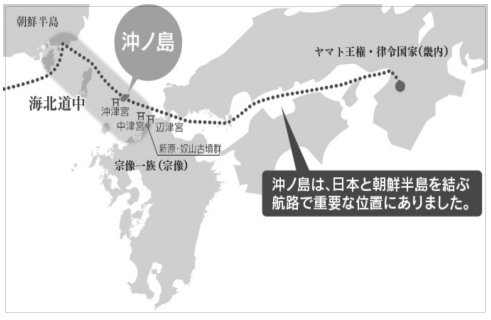
사실 규슈에서 한반도로 가는 항로는, 우선 해안을 따라 이키까지 간 다음 쓰시마 북단을 거쳐 한반도로 향해 노를 젓거나 해류와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반대로 한반도에서 규슈로 가는 항로는 해류와 계절풍을 활용할 수 있는 오키노시마 경유의 경로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에 안보상 왜왕권은 이 경로를 국가기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오키노시마 제사가 발생한 이유이자 무나카타 삼여신과 무나카타 씨가 중요시된 이유였다.[46]

---

44) https://www.sumiyoshitaisha.net/events/special.html(검색일 2020.9.26)
45) 율령제 아래 군 전체가 특정 신사의 소령・신역으로서 정해진 군이다.
46) https://ameblo.jp/shimonose9m/entry-12035560894.html(검색일: 2021.5.30)



<그림15> 무나카타 대사의 위치[47]



<그림16> 해북도중과 오키노시마[48]

5.2 해신의 정치이데올로기화

『고사기』·『일본서기』신대사에 의하면 무나카타 삼여신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결백을 증명하는 종교적 의례로서 스사노오노

> 미코토의 칼을 씹어 잘게 깨어서 뱉었더니 그 파편에서 다고리히메[田心姫], 다기쓰히메[湍津姫], 이치키시마히메[市杵島姫]의 삼녀신이 태어났다. 그 후 아마테라스의 신칙(神勅)을 받들어 황손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를 돕기 위해 현해탄에 떠 있는 섬들에 내려와 다스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화에서 삼여신은 황조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자녀로서 해상에서 한반도와 규슈 사이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과연 국가기밀을 지키는데 어울리는 신화라 말 할 수 있다. 현재 무나카타 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삼여신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그림 17>).

오키쓰 궁[沖津宮]: 다고리히메
나카쓰 궁[中津宮]: 다기쓰히메
헤쓰 궁[辺津宮] : 이치키시마히메

<그림17> 무나카타 대사의 제신[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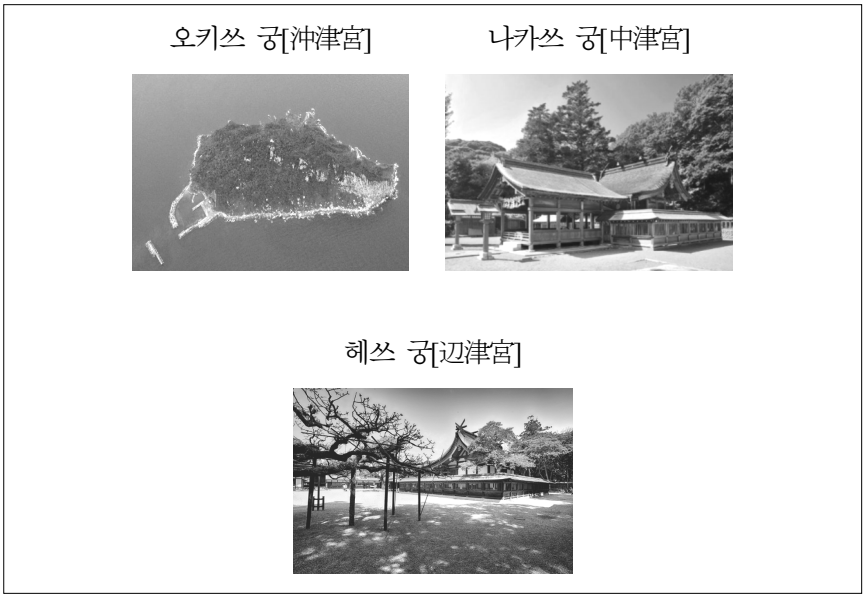
47) https://blog.goo.ne.jp/seiya0130/e/293b0e223c55c6cbedbdff49dae02b68(검색일 2020.9.26)
48) https://www.city.munakata.lg.jp/w010/030/020/040/0080/20150317144010.html(검색일 2020.9.26)
49) https://munakata-taisha.or.jp/(검색일 2020.10.3)

삼신이 각 궁에 제신으로 모셔져 있는 점은 시카우미 신사나 스미요시 대사와 같지만 진구황후가 모셔져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무나카타 대사의 강점은 진구황후 설화의 정치이데올로기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5.3 바다에서 멀어진 신도 해신제

5.3.1 무나카타 대사

무나카타 대사는 일본 각지에 7000여개에 이르는 무나카타 신사나 이쓰쿠시마 신사[厳島神社]의 총본사로서 무나카타시에 위치하고 있다. 무나카타 대사의 독특한 점은 와타쓰미 신사와 스미요시 대사와 달리 삼신의 거처가 각기 다른 거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이 오키노시마에의 오키쓰 궁[沖津宮]에는 다고리히메, 오시마[大島]의 나카쓰 궁[中津宮]에는 다기쓰히메에 그리고 무나카타시의 헤쓰 궁[辺津宮]에는 이치키시마히메가 봉안되고 있으며 세 가지를 총칭하여 '무나카타 대사'라고 한다(<그림18>).



<그림18> 무나카타 대사

13세기에는 무나카타 씨의 후예가 무사로서 유력한 영주로 성장했으며 14세기에는 전쟁에 동원되면서 무나카타 대사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방화나 파괴가 이어졌으나 그때마다 조정이

나 무가가 재건을 되풀이했다.

현재의 헤쓰 궁 본전은 1578년에 재건된 것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에도시대에는 후쿠오카 영주 구로다 씨[黒田氏] 등에 의한 신전의 조영, 수리, 기부 등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되었던 경내가 모 사업가에 의해 재건되었다. 오키쓰 궁에서 출토한 8만 점에 이르는 유물이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현재는 해로뿐만 아니라 모든 '길'의 신으로서 항해안전이나 교통안전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고 받들고 있다. 또한 여느 신사와 마찬가지로 인생의례, 사업번창, 학업성취와 같은 기복신앙으로도 사람들을 모우고 있다.

5.3.2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해신제

무나카타 대사도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된 제사는 다음과 같다.[50]

<표5> 무나카타 대사의 해신제

세단제[歲旦祭]	정월 1~3 일	새해를 축하하고 황실과 국가의 번영, 지역 및 타 씨족 숭배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이다.
춘계 대제	4월 1~3일	무나카타 대사가 소장하고 있는 신보와 고문서의 공개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오곡풍양을 기원하며 풍속 춤으로 이루어진다.
여름 넘어 불제 [大祓式夏越祭]	7월	반년 간의 심신의 부정을 물리치는 축제. 인형에서 죄나 화를 털어 없앤다.
전몰자위령제	8월	청일전쟁, 러일전쟁, 대동아전쟁에서 전사한 영혼을 위한 위령제이다.
추계 대제	10월 1~3일	오키노시마에서 신을 맞이하기 위해 어선들이 깃발을 날리며 해상을 행진한다(미아래사이[みあれ祭])(<그림 19>). 이어서 풍속 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행사, 봉납, 스모 등이 행해지며 신녀의 춤으로 마무리 한다(<그림 20>).
서일본 국화대회 (西日本菊花大会)	11월	약 3 천 송이의 국화가 경내에 전시되는 서일본(西日本) 최대 규모의 국화대회이다.
고식제(古式祭)· 진화제(鎮火祭)	12월 중순	고식제는 신찬을 신전에 공양하는 축제로, 800 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진화제는 신전에서 고대 방식으로 소방의식을 하고 재난을 피하기 위한 행사이다.
해 넘기기 불제 [年越大祓]	섣달 그믐날	한해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축제이다.

50) https://munakata-taisha.or.jp/saiji.htmll(검색일 2020.10.3)

<그림19> 미아래사이[51]

<그림20> 신녀의 춤[52]

위와 같이 무나카타 대사에서는 어선들의 행진과 같은 해신제 다운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령제, 국화 전시대회 등 바다와 무관한 요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두 신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른 신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 온 결과라 말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 글은 일본의 해신을 동아시아 해양문화의 전개라는 관점으로 조명하여 시대에 따라 민속신앙, 정치이데올로기, 신사신도, 민간신앙으로 변용하는 모습을 와타쓰미 삼신, 스미요시 삼신, 무나카타 삼여신을 통해 살펴본 것이었다. 해신의 모체문화는 고대 일본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외래문화 중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에 기원을 둔 '도작어로민'의 문화였다. 이 문화는 기원전 4~5세기에 멸망해 사방으로 흩어진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해인으로서 어로와 항해를 영위하면서 해신을 섬겼는데 왜왕권이 일본을 장악하면서 그 정치 체제에 편입되었다.

왜왕권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북부 규슈에 거점을 두었던 해인의 민속적 해신은 왜왕권의 국가적 제사의 제신으로 격상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족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어떤 부족은 왜왕권의 본거지인 야마토로 옮기기도 했다. 또 어떤 부족은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왜왕권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크게 발전하기도 했다.

8세기에 왜왕권이 율령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일본신화를 편집할 때 해신과 황실 사이의

51) https://mainichi.jp/graphs/20171001/hpj/00m/040/002000g/2(검색일 2020.10.3)
52) https://munakata-taisha.or.jp/hetsu_saiji.html(검색일 2020.10.3)

혈연관계가 창작되었다. 이제 종교였던 해신은 정치사상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화의 해신은 신사의 제신이 되었으며 무사나 서민의 신앙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신사에서는 바다와 관련이 없는 종교 행사가 이루지기도 했다. 현재 해신을 모시는 신사에서는 각양각색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신과 관련이 없는 것이 훨씬 많다.

이러한 일본 해신의 존재 양식은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의 일본적 변용'으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중국, 동남아시아, 한반도에서도 각기 나름의 변용을 겪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족주의로 인해 '일본의 해신', '한국의 해신'과 같은 범주로 연구해 왔으나 이러한 범주를 탈피하여 '동일문화의 지역적 변용'이라는 시각, 즉 역사민족학적 관점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의 추적과 재구성은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상호 공감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 고대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근거로 삼았던 진구황후가 여전히 제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신사 외에도 신공황후 관련 전승이나 지명이 규슈를 중심으로 무려 3,000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53] 진구황후의 실재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역사학적으로는 부정되었지만 민간신앙으로 무비판적으로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학계에서 관련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54]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參考文獻】

安曇誕生の系譜を探る会　ゆかりの地部会(2015)「綿津見神社の調査結果報告書　安曇誕生の系譜を探る会」, p.16
有馬学·川添昭二 編(2004)「志賀海神社」『福岡県の地名』平凡社
大林太良(1995)『北の神々南の英雄』小学館, pp.201-204
岡正雄(1979)『異人その他: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言叢社, pp.18-36
飯田勇(1997)「ワタツミ三神」大林太良·吉田敦彦『日本神話事典』大和書房, p.128
江上波夫(1984)『倭人の國から大和朝廷へ(江上波夫著作集 8)』平凡社, p.117
加藤隆久(2001)「住吉大社」大島建彦　外『日本の神仏の辞典』大修館, p.712
河村哲夫(2013)[神功皇后の謎を解く」原書房
「角川日本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志賀海神社」·「志賀島」(1988),『角川日本地名大辞典 40 福岡県』角川書店
北見俊夫(1995)「海洋と祭祀」 大林多良 編, 『日本の古代3 海をこえてのの交流』中央公論社, p.400

53) 河村哲夫(2013)[神功皇后の謎を解く」原書房
54) 2020년 11월 6일에 한일문화교류기금이 주최로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에서 개최된 2020년 한일국제학술회(「일본인의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연민수 교수께서 교시한 말이다.

島田潔「大綿津見神」(1998), 薗田稔·茂木栄『日本の神々の事典 神道祭祀と八百万の神々』学研, p.156
文化庁 編(2020)『宗教年鑑 令和2年版』文化庁, pp.35-36
中嶋宏子(2001)「綿津見大神」, 大島建彦 外, 『日本の神仏の辞典』大修館, p.1361
田辺悟,「海人の信仰とその源流」大林太良『海人の伝統 日本の古代8』中央公論社, p.333
宝賀寿男(1986)「第3章 地祇系氏族 第2節 海神族(2)尾張氏族 10津守連(一), 津守宿祢」『古代氏族系譜集成』中巻, 古代氏族研究会, pp.13-30
安田喜憲(2003)『日本古代のルーツ長江文明の謎』青春出版社, p.114
http://artbi456.blog.fc2.com/blog-category-51.html(검색일 2020.9.20.)
http://shikaumi-jinja.jp/about/index.html(검색일 2020.9.20.)
http://www.shikaumi-jinja.jp/(검색일 2020.9.22.)
https://ameblo.jp/shimonose9m/entry-12035560894.html(검일일: 2021.5.30.)
https://ameblo.jp/yellowsunshine/entry-11044009462.html(검색일 2020.9.25.)
https://genbu.net/data/tikuzen/sikakai_title.htm(검색일: 2012.9.28)
https://kotobank.jp/word/%E9%81%A3%E5%94%90%E4%BD%BF-60954(검색일 2020.9.20.)
https://mainichi.jp/graphs/20171001/hpj/00m/040/002000g/2(검색일 2020.10.3.)
https://munakata-taisha.or.jp/(검색일 2020.10.3.)
https://munakata-taisha.or.jp/about_hetsu.html(검색일 2020.10.3.)
https://munakata-taisha.or.jp/hetsu_saiji.html(검색일 2020.10.3)
https://munakata-taisha.or.jp/saiji.htmll(검색일 2020.10.3.)
https://www.city.osaka.lg.jp/higashisumiyoshi/page/0000033861.html(검색일 2020.10.26.)
https://www.nishinippon.co.jp/item/n/221471/(검색일 2020.10.3.)
https://www.okinoshima-heritage.jp/know/nakatsumiya.html(검색일 2020.10.3)
https://www.sumiyoshitaisha.net/about/god.html(검색일 2020.10.26.)
https://www.sumiyoshitaisha.net/about/origin.html(검색일 2020.9.25.)
https://www.sumiyoshitaisha.net/about/origin.html(검색일 2020.9.25.)
https://www.sumiyoshitaisha.net/events/(검색일 2020.9.25.)
https://www.sumiyoshitaisha.net/events/special.html(검색일 2020.9.26.)

논문투고일 : 2021년 06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7월 14일
1차 수정일 : 2021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21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8월 20일

〈要旨〉

동아시아 해양문화와 일본 신도의 해신

세키네 히데유키

이 논문은 일본 신도의 해신을 동아시아 해양문화의 전개라는 관점으로 조명하여 시대에 따라 민속적 신, 국가적 제사의 제신, 신화의 신, 신사의 제신으로 변용한 모습을 일본의 대표적인 세 가지 해신의 사례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 일본 해신의 모체문화는 사방으로 흩어진 오·월나라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어로와 항해를 생업으로 하는 해인 부족으로서 해신을 섬겼는데 왜왕권이 일본을 장악하자 그 정치체제에 들어가 국가적 제사를 맡았다. 나아가 왜왕권이 율령체제를 채택하자 황실과 해신족의 선조가 혈연관계를 가진 일본신화가 창작되었다. 이 시점에서 해신에 대한 제사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사상이 되었다. 일본신화 속의 해신은 전국에 건립된 신사의 제신이 되었는데 무사나 민중의 신앙을 받아들여 바다와 관련이 없는 행사가 행해졌다. 이러한 해신의 변용은 중국, 동남아시아, 한반도에서도 겪었을 것이다. '일본의 해신', '한국의 해신'과 같은 범주를 탈피해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의 추적과 재구성의 시도는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상호공감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ast Asian maritime culture and the sea gods of Shinto

Sekine, Hideyuki

This paper considers the sea gods of the Japanese Shinto pantheon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s in East Asian maritime culture. Three representative Japanese gods of the sea will be examined concerning their transformation into folk gods, national ritual deities, mythological deities, and shrine deities. The mother culture of the Japanese sea gods is presumed to be that of the Go and Etsu people, who dispersed in all directions. They served the sea gods as a tribe of seafarers consisting mainly of fishers and navigators. When the Yamato Kingdom took control of Japan, they created the political system and were responsible for national rituals. In addition, when the Yamato Kingdom adopted the Ritsuryo system, Japanese mythology was created in which the imperial family and the ancestors of the sea gods were said to be in a blood relationship. At this point, rituals to the sea gods became a political idea rather than a religion. Furthermore, the sea gods in Japanese myths became deities of shrines erected all over the country. There, with the intake of the beliefs of warriors and the populace, events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 sea were held. This transformation of the sea gods was probably also experienced in China, Sou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Breaking away from the categories of "Japanese sea gods" and "Korean sea gods," this attempt to trace and reconstruct the maritime culture of East Asia is a necessary research topic that can also be useful in building mutual empathy in East Asia.